

한국(韓國) 진주형(晉州邢)氏 조형물(造型物) 제막식 소식

2017년 11월 4일! 영원히 잊지 못할 날이고 역사에 기록되는 날 이다.
이날은 대전시 중구에 위치한 뿌리공원에 진주형씨 상징조형물을 웅장하게 세우고 제막식을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행사장 입구에서 참석자들에게 총무 형철우 감사 형형문 추진위 형남웅님이 나누어 준 진주형씨 뺏지와 노랑색의 휘장을 받아 목에 두르고 행사장을 향하여 가는데, 그 모습은 깊어가는 가을의 노란 색 단풍잎과 같이 어울려져 정말로 아름다운 물결이 흘러가듯 보였다. 이날 행사장에는 진주형씨 대종회장 형백우님 외 임원진과 각 문중 종중원 및 가족 분들 그리고 멀리 중국 전국형씨 종친회겸 세계형씨총연맹협회 총회장 형계주님을 비롯하여 각 성의 대표들이 통역관 고재관님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하였다. 첫 계획은 25명의 각 성의 대표단과 태국 대표단이 오기로 하였으나 중국 국내 사정으로 인해 11명만 참석했다.

행사전 대종회장 형백우님은 축하 인사를 받으며 종중원을 맞이했고, 추진위 형시영 경감의 사회로 이루어졌다. 식전 행사에서는 대전 국악단의 비나리 판소리로 시작되었고 이어 흥겨운 사물놀이는 신나는 팽과리와 북소리로 뿌리공원 전체에 울려 퍼져 진주형씨를 널리 알리고 축복을 바라는 힘차고 멋진 무대가 진행되었다.

본 행사에 앞서 방문하여 주신 대전시 중구청장 박용갑님의 방문과 축하인사 말씀은 더욱 이날을 빛나게 하여 주었다.

식순에 의한 진행은 국민의례 선조님에 대한 묵념 내 외빈 소개가 있었으며, 형창섭 부회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그 동안 공적이 많고 협조가 많았던 분들께 공로패와 감사패가 형백우 회장에 의하여 수상식이 있었다. 시상자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멀리 중국에서도 진주 형가 문중을 위하여 노력한 형계주, 형유순님에게 주어졌으며 함께 노력한 통역관과 작가님에게도 감사의 뜻과 함께 전달이 되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대종회를 위해 모든 지원을 하여 주신 수원분파 회장 형태호님을 비롯한 종중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마당도 되었다.

진주형씨대종회 회장 형백우님의 인사말에 이어 축사는 중국 세계형씨총연맹 회장 형계주님의 말씀이 있었으며 "세계형씨는 한가족이다" (邢氏是一家)로 시작되었습니다. 세계형씨는 한 혈육이고 같은 조상님 형후 형정연(邢靖淵) 할아버지의 자손으로서 서로가 얼굴도 닮았고 문화도 같으니 한, 중의 형씨들이 서로 교류 하여 더욱더 발전되고 찬란한 역사를 이어갈 후손 육성에 앞장서자고 하였다. 진주형씨 조형물은 한국의 것만이 아닌 세계적인 것이고 도등이라고 하면서 용에 비교를 하였고 앞으로 세계 "형"씨의 "로그"로 한다고 하였다. 도등(圖騰)=(휘표, 徽標)-> 종족, 종교의 정신(宗族, 宗教的精神).

다음은 역사적인 제막식이 진행되었다. 양국 회장은 좌우측으로 나누어서 줄을 잡기 시작했다. 왼쪽 줄은 한국 형씨 대표단이 우측 줄은 중국 형씨 대표단

이 각각 잡고는 신호에 맞추어 힘껏 당겨 빛나고 웅장한 형씨 상징 조형물이 모습을 드러내었다. 모두가 와~~ 하는 함성으로 가득 찼으며 기뻐하였다. 비문 낭독과 고유제는 형백우 회장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잘 차려진 제상 앞에서 조상님들에 대한 제배와 고유문 낭독으로 진주형씨 아니 세계형씨들에게 희망을 주고 자손의 번창과 국가에 이바지하는 인물 배출과 자손들이 건강하고 부유한 복이 오기를 빌고 모든 조상님들의 왕생극락을 빌었다. 이어 각 개인의 제배에서 돼지머리 입어 지폐를 넣은 것을 보고는 중국 대표단은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고 질문했다. 물론 복을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친교를 이루며 함께한 점심식사는 "형씨를 위하여!" 건배주가 이루어 졌고 모두에게 주어진 조형물을 담은 기념품 액자를 받고 즐거워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남녀노소 중에는 불편한 몸으로 대구에서 오신 연세 드신 분은 몇 번씩 뿌리공원을 방문하여도 우리 형씨 성이 없어 서운하였는데, 우리도 이제 널리 알릴 수 있는 형씨 상징물을 세운다기에 살아생전에 꼭, 보아야 된다고 하며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참석을 하였다고 하며 대종회장 손을 꼭 잡고는 "이제는 죽어도 좋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남겼다.

행사장을 떠나면서 천종권 조각가님도 즐거워하였고 멋지고 성공적인 제막식이라고 기뻐했다.

버스에 올라탄 일행은 다음 목적지인 경상북도 청도 부야한의원을 향하여 출발을 하였다.

노력의 댓가:

이 날을 위하여 그 동안 어렵고 힘든 과정이 몹시 많았다. 그리고 조형물 설치를 시작으로 오랜 세월 동안 찾지 못했던 선조님들의 이름(함)자를 모두 찾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선조님들의 기록에 의한 서기 634년에 당나라 문화 문학 유교 등을 고려인(고구려)에게 보급하고자 파견되었으나 여러 번의 나라 재난과 전쟁으로 소멸되어 약 1383년 동안 선조님들의 행적 자료를 찾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으나 24년 전부터 족보를 보며 관심을 갖고, 고 형남표님의 자료 도움을 받아 홈페이지를 만들기 시작한 현 대종회장 형백우님에 의해 모든 것이 밝혀졌다.

한국 시조님인 "형 옹"자 와 중시조 "형 병"자 사이의 13대 선조님들 이름(함)자를 밝히기 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였다. 한국에는 대종회장 형백우, 중국은 부회장 형유순, 절강성 형지명님이 족보들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통역은 고재관님이 맡아서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한국과 중국을 통신으로 서로 주고받은 결과로 밝혀졌다.

즉, 다음과 같다.

중국 주(周) 나라 서주(西周) 문왕의 제 4子이자 무왕(武王)의 동생(弟)인周公(周公:단,묘)의 제 4子 ("邢")시조, 1세(世): 형정연/저(邢靖淵/苴)- 2세(世): 엄(俺)-3세(世): 침(沈) ~ ~ 35 세(世): 한국시조 형 옹(邢顛)-우(友)-문(文)-만(巒)-소(邵)-흔(昕)-장(臧)-정(貞)-위(偉)-굉도(宏道)-현(顯)-염(冉)-군아(君牙)의 二子-진(振)-중시조 1세(世): 형 병(邢昞)-적(積)-순(順)-명(明)-연기(研機)-관(寬)-홍(弘)-온(溫)-항(杭)-완(琬)-존(存)-헌(憲)-관향조,방(昉)-승서(承緒)-충선공,공미(公美)-문궤(文軌)-찬(贊)-18세(世): 군소(君紹) 판서공파
-18세(世): 군철(君哲) 병사공파

위의 “우~진“자 모두를 찾게된 것이며, 중국 절강성의 금화오동두촌 형씨와 같은 혈통 집안이 된다. 세계 형씨는 하나이며 모두가 형후 정연(靖淵)의 후손이다. 즉, 주나라 문왕의 손자 이고 주공의 아들 후손인 것이다.

조형물 설치 추진을 시작하면서 뿌리찾기 운동은 많은 진전이 있었고 마침내 중국의 형씨 종친회와 연결하게 되었다. 언어 소통의 장애는 번역기와 유능한 통역관 고재관님의 노력으로 발전 되었으며 최초 왕래는 금년 3월 25일 진주 형씨 대총회의 때 중국 대표인 부회장 형유순님이 한국을 방문하므로 이루어 졌다.

그리고 이어서 5월 19일은 한국 대표단이 중국 형후(邢侯) 형정연(邢靖淵) 시조님의 성지인 형대시(邢台市:싱타이)를 방문을 하였다. 형(邢)자 하나로 우리 몸 속에 비슷한 유전자가 흐름을 느끼는 순간으로 서로가 부등켜안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쁨을 나누었다.

한국이 추진한 형씨 조형물설치 성공 제막식에 참여를 위하여 양국 간에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고 최종 참가자 명단을 보내왔다. 처음 보내온 명단보다 절반으로 **줄** 것은 당시 중국 시진핑 주석의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연설로 인한 통제로 비행기 표를 사 놓고도 못 오게 되었기 때문이다.

첫째날, 중국대륙의 각지에서 오다보니 한꺼번에 오지를 못하고 3차에 나누어 오게 되었는데 1진은 11월 2일 2-3진은 3일 날 도착하여 인천공항에서 합류를 하였다. 한국의 형씨 환영객과 중국의 형씨 방문자가 모여 인사를 나누고 플래카드를 앞에 두르고 기념촬영을 하니 공항안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었다.

공항 주변에서 점심식사 후 부여 백제컨트리클럽에 도착하고 보니 백제CC 회장이신 형남순님과 (주)공유 사장 형교정님이 현관 앞에서 환영을 하여 주셨다. 어둠이 오기 전에 골프장을 카트를 타고 관람을 하니 중국 형계주 회장이 매우 좋고 잘 가꾸어진 곳이라고 감탄사를 연속 보냈다. 사실 그는 북경에서 골프를 주 2-3회를 하고 집도 골프장 옆에 마련한 대단한 골퍼맨이고 또한 세계적인 골동품 수집가이다.

골프장 투어를 마치고 마련된 만찬장에서는 간단한 개인소개와 양국 간의 뿌리찾기 완결을 위한 대표자 서명이 이루어졌다. 그 동안 긴긴 세월 약 1383년간의 기다림을 종지부 찍는 순간이었다. 전율을 느끼는 감격으로 형백우 회장의 가슴은 마냥 쿵덕 거리고 떨리는 순간이었다. 선조님의 근원과 뿌리연결을 얼마나 알고자 하고 찾고자 하였든가 외치며, 속으로 조상님! 이제야 비로소 찾았습니다! 하고 화끈하게 달아 오른 표정을 감출수가 없었다.

곧 이어서 양국 회장이 함께 손을 맞잡고 케이크 절단식과 건배주가 있었다. 그리고 내일 행사를 위하여 대전 근교 호텔로 이동하였다.

둘째날, 문두에 기록된 행사를 마치고, 모두 버스에 올라 다음 목적지인 청도 부야한의원을 방문하였다. 일행 중에는 유명한 중,의원을 하는 하복성 형택님이 있었다. 청도와 대구 양쪽에 있는 부야한의원은 형석운 회장님과 오진화 원장 부부가 운영하는 한국 최대의 한의원으로 16명 한의사 원장이 근무하며 많

은 직원이 함께 호흡을 맞추며 친환경 약제를 제조하는 체질치료의 중심이라 한다. 대총회 홍보이사 형청도님의 형님이신 부야 큰형님 형석규님의 브리핑을 듣는 중,의원 원장도 감동을 받고 한,중의학 교류를 하기로 하였다. 식사 후 목적지인 부산에 도착하여 세석건설 형춘기님이 마련한 만찬으로 즐거운 흥을 돋우고 형철지공 세무법인대표 형남신님의 배려로 편안한 호텔에서 휴식을 취했다. 일부는 밤늦은 부산의 야경에 도취되기도 하였다. 짧은 일정에 여러곳을 방문 하자니 시간이 없었다.

셋째날, 숙소를 수원으로 정하였기에 시간이 없었다. 일찍 이동하여 부산 해운대의 유명한 동백섬 돌레길을 트레킹 하니 모두가 환상에 젖어있었다. 중국은 거대하지만 산을 보려면 멀리가야 하고 이처럼 아기자기한 아름다운 곳이 없다고 하였다. 누리마루 전망대에서는 떠나기를 거부하고 연속적으로 사진 찍기에 바빴다. APEC 정상회담 장소에서는 한, 중 형씨들이 손에 손잡고 기념촬영을 하면서 혈육의 체온을 느끼기도 하였다.

부산을 출발하여 구례를 가기전 진주에 잠시 들러 (주)세기건설 형춘기님이 공사하고 있는 30층 아파트 공사 현장을 들렀다. 중국의 공사현장과 한국의 건설현장 상황을 비교분석 해볼 수 있는 기회였으며, 매우 진지하게 질문을 하고 흥미롭게 관찰을 했다.

다시 출발하여 전남 구례에 모셔진 진주형씨 관향조 이신 충선공 성지를 방문하였다. 이곳은 바로 아래에 거주하는 대총회총무 형철우님이 대부분 관리하고 있다. 경남 진주에 첫 발을 들여놓으신 형 방 조상님을 시작으로 중국 형대시(邢台市)에서 가져온 형가주(邢家酒)로 차례로 잔을 올리고 한, 중 형씨 대표단이 함께 제를 올리는 순간은 정말 감동적이었다.

조상님들께 아뢰나이다! 그토록 갈망하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기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깊이 머리숙여 고 하였다. 그리고 앞에 앉아서 옛 족보를 펼쳐보았고 함께온 형학사님 기자는 한장 한장 사진으로 담았다. 눈물이 핑도는 순간이었고, 한국 대총회장 형백우와 중국 총회장 형계주 양국 두 사람의 자리를 못 뜨고 서로 뜨거운 포옹을 한참 하였다.

수원을 향해가는 고속도로는 일요일이라 엄청 막혔다. 모두가 지루함과 피로에 젖었지만 순간순간 분위기를 잘 살리는 추진위 형시영님의 제치로 무사히 수원 도착하여 제일 큰집인 수원분파가 마련한 갈비 집에서 만찬을 즐겼다. 사실 오랜 기간 동안 대총회와 합류하지 못하고 단독으로 종친회를 하였던 수원분파가 형씨 상징조형물 설치를 개기로 회장 형태호님을 중심으로 형진수 형민우님이 합류하여 즐기게 되었다.

넷째날, 일행은 용인 한국 민속촌을 방문하여 한국의 풍속과 미를 보여주니 모두가 좋아 하고 즐기면서 아름다운 단풍 경치에 도취되어 사진촬영으로 떠날 줄 모른다. 물론 1진의 출국시간 여유는 있지만, 버스는 인천공항에 모셔드리고 2진을 숙소로 모셔 드리고 다시 전남 광주까지 내려가려니 시간이 없어 초조한 마음이었다.

공항으로 가든 길은 즐거운 음악에 맞추어 노래도 하고 한잔의 술로 서로 혈통을 찾은 기쁨과 함께 몇일동안 즐거웠던 시간을 대화 나누며 환송 인사로

대신했다. 진행자의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말 한마디는 형백우 회장의 가슴을 울렸다. 그 동안의 숙원사업을 완성이까지의 갖가지 일들과 어려웠던 모든 과정이 머릿속에 아련거리 순간적인 울음이 복받쳐왔다.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은 억제할 수 없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말았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포옹하며 위로의 말과 감사의 말을 전달하였다. 이를 본 모든 일행이 함께 눈물을 흘려 버스 안은 온통 울음바다가 되어버렸다. 물론 서운함도 있었지만 모두는 혈육을 찾은 기쁨의 눈물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현대 시대에 삶을 생존하게 됨에 감사함을 스스로에게 하였다. 내년 3월이면 우리 나이로 70세가 되는 회장은 과연 현대의 디지털 시대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한국서 출발하여 멀고먼 북경과 형대시 절강성을 오가면서 선조님들의 행적을 찾을 수가 있을까? 하고, 현대사회에 감사해 하였다. 그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함께 협력하고 따라준 춘천에 있는 아내에게도 감사드린다.

2017년 11월 13일 늦은 밤

한국 진주형씨대종회

회장 형 백 우 글썸 home: <http://www.hyongc.net>

*** 참고사진 몇장 첨부합니다.

인천공항 환영장면(회장 형백우외, 형철우, 형옥주, 형시영, 형남용, 형춘기, 고재관, 중국회장 형계주의 일행,)



백제 컨트리클럽 (백제CC에서, 형백우, 형계주, 형남순회장과 단체사진, 서명식, 케익절단식)





행사장 (박용갑 대전시 중구청장, 사회 형시영, 경과보고 형창섭, 인사말 형백우, 축하사말 형계주)



본행사 진행



시상식(공로패:수원분파(형태호), 형계주, 형철우, 형시영, 형유순), 감사패,(형남순, 형춘기, 고재관)



제막식 시작 (좌:한국 형씨, 우:중국 형씨)



고유제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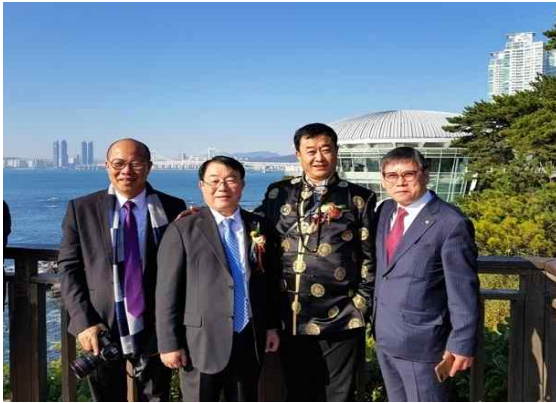


청도 부야한의원 방문



부산도착





진주 30층 아파트 공사현장 (부사장 형춘기 세석건설 현장)



구례 충선공 성지



수원으로 가는길 교통체증 시간



수원분파 만찬회



용인민속촌 관람



주공(단)의 아들 형후(邢侯) 형정연의 후손



중국 주(周) 나라 서주(西周) 문왕의 제 4자이자 무왕(武王)의 동생(弟)인 주공(周公:단,트)의 제 4자 ("邢")시조, 1세(世): 형정연/저(邢靖淵/苴)- 2세(世): 엄(俺)-3세(世): 침(沈) ~ ~ 35 세(世): 한국시조 형 옹(邢 顛)-우(友)-문(文)-만(巒)-소(邵)-흔(昕)-장(臧)-정(貞)-위(偉)-굉도(宏道)-현(顯)-염(冉)-군아(君牙)의 二子-진(振)-중시조 1세(世): 형 병(邢 昞)~~~ 로 연결된다.

한국 진주형씨대종회 회 장: 형백우(邢栢宇) 엮음, 2017년 11월 17일 보냄.